

광주일보 3·1절 마라톤 D-17

“우리도 함께 뛴다”

남도의 불을 달리는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47번째 짤주가 17일 앞으로 다가왔다. 전국의 마라톤 동호회·기관·단체·시민들이 힘찬 짤주로 3·1운동의 기상을 높이기 위해 대회 참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출시표를 던진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화순의 멋·인심 알리는 홍보대사들

“20여명 ‘하프’ 도전 건강 완주 목표”

■ 화순마라톤클럽

“가족 사랑, 화순 사랑을 외치며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달리겠습니다.”

‘고인돌의 고장’ 화순을 대표하는 화순마라톤 클럽이 제47회 광주일보 3·1 전국마라톤대회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은 지난 2001년 마라톤을 통해 건강을 지키고 고향을 알리자는 생각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끈끈한 정을 바탕으로 모인 화순마라톤클럽 회원들은 ‘즐거운 운동’을 외치며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각종 마라톤대회에 출전해 ‘고인돌의 고장’ 화순을 전국에 널리 알리며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개인운동을 하며 체력을 다지고 있는 이들은 매주 토요일 화순 공설 운동장에 모

여 호흡을 맞추고 있다. 도곡 농공단지와 화순 낙십자 단지 등을 뛰면서 쌓았던 스트레스를 풀고 마라톤 실력도 키워나가고 있다.

매년 ‘화순 고인돌 마라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들은 고향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쓰레기를 치우고, 대회 코스 구간에 나무를 심는 등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전국을 달리며 건강과 애향심을 키우고 있는 이들은 마라톤을 통해 가족간의 사랑도 더하고 있다. 회원들은 마라톤 이외에도 등산과 야유회 등의 행사를 열어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있다.

개인운동을 하며 체력을 다지고 있는 이들은 매주 토요일 화순 공설 운동장에 모

여 호흡을 맞추고 있다. 도곡 농공단지와 화순 낙십자 단지 등을 뛰면서 쌓았던 스트레스를 풀고 마라톤 실력도 키워나가고 있다.

매년 ‘화순 고인돌 마라톤 대회’를 주관하고 있는 이들은 고향에서 열리는 마라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쓰레기를 치우고, 대회 코스 구간에 나무를 심는 등 성



3·1 마라톤대회 건강한 완주를 목표로 화순마라톤클럽 회원들이 화순 하니음 체육관 내 육상트랙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없이 건강하게 달려 결승선을 통과하면 좋겠다”고 참가 소감을 말했다.

화순 마라톤 클럽을 이끌고 있는 배상돈 회장은 “이번 대회는 본격적인 시즌 출발

을 위한 무대로 도전과 컨디션 점검차원에

서 뛰기 때문에 회원들이 단합해서 같이 결

승선을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며 “건강을 위해 마라톤을 하는 것이기 때

문에 무리 하지 않고, 서로 위하고 격려하

면서 결승선을 통과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베스트 11 업그레이드...‘돌풍’ 준비 중

중국 상하이=김여울기자

광주 FC 상하이 전훈

연습경기로 시즌 구상

광주 FC의 베스트 라인업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중국에서 전지훈련 중인 광주 FC는 연습 경기를 통해 2012년 베스트 멤버를 가지고 있다. 부상을 털어낸 공격수 박기동까지 연습경기에 가세하면서 베스트 라인업 윤곽이 잡히고 있다.

박기동은 11일 상하이 선화구장에서 열린 난창 형위안과의 경기에 출전해 100일만에 그라운드에 올랐다. 박기동은 발목 부상때문에 시즌이 끝난 뒤 진행된 연습경기에 한 차례도 출전하지 못했다.

앞선 8일에는 올림픽대표팀 호출을 받았던 김동섭이 중국 캠프에 들어오면서 난창과의 경기에서 모처럼 토종 공격진이 힘을 맞췄다.

올 시즌은 광주의 공격에 핵심 변수로 떠오른 K리그 최장신 복이와 지난 시즌 그라운드를 종횡 무진했던 주양파울로까지 경기에 투입되면서 최만희 감독이 구상하는 2012 시즌의 밀그림이 그려졌다.

수비의 큰 틀을 잡는 작업도 이뤄졌다. 올 시즌 포백을 활용하겠다고 밝힌 최 감독은 12 일 빗속에서 진행된 섬성 궁극과의 경기를



광주 FC 김동섭이 11일 상하이 선화구장에서 열린 난창 형위안과의 경기에서 상대 수비수와 공을 다투고 있다.

벽을 세웠다. 뒤늦게 합류한 신입 외국인 선수 수비와 몸살로 경기에 뛰지 못하고 김은선 까지 더한다면 광주의 큰 틀은 마련됐다.

베스트 라인업을 가동시킨 최 감독은 12 일 빗속에서 진행된 섬성 궁극과의 경기를

통해 다양한 경우의 수를 계산했다.

전날 B팀 경기 맵버로 뛰었던 수비수 이한샘과 임하람이 정우인 유종현과 포백을 구성했고, 박요한·박민·임선영·안성남도 스타팅멤버로 나섰다. 신인 골키퍼 윤기해

도 골문을 지키며 전력을 점검 받았다.

2012 시즌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는 광주는 13일 중국 전지훈련 이후 첫 휴식을 갖고 잠시 숨을 고를 예정이다.

/wool@kwangju.co.kr

상하이에 터진 ‘웃음폭탄’

광주 FC 전훈 캠프... 선수들 장기자랑 열광의 무대

광주 FC의 전지훈련 캠프에 ‘웃음 폭탄’이 터졌다.

지난 10일 밤 광주 선수단이 한 달 동안 준비한 비장의 무대를 선보였다. 신인 여름부터 최만희 감독까지 제대로 망가진, 과격적인 장기자랑 무대였다.

이번 장기자랑은 ‘유쾌한 전지훈련’을 위해 마련한 특별 이벤트. 최만희 감독이 흥을돋우기 위해 상금으로 1000달러를 내걸었고, 기영옥 광주시축구협회장과 광주시체육회 김홍식 상임부회장도 각각 1000달러를 페북하면서 3000달러의 상금까지 마련됐다.

지난달 10일 첫 미팅을 시작으로 만반의 준비를 한 선수단은 이날 화끈한 공연으로 상하이의 밤을 뜨겁게 달구었다.

가장 먼저 무대에 오른 2조부터 심상치 않았다. 조우진을 조장으로 한 2조는 복고풍 의상을 입고 90년대 초반 히트를 기록한 철이와 미애의 ‘너는 왜’에 맞춰 노래와 춤을 선보였다. 여별규 수석코치는 빨간 스커트까지 소화하면서 제자들과의 공연에 함께했다. 올림픽대표팀 참가로 뒤늦게 캠프에 합류한 공격수 김동섭도 핫팬츠 차림으로 동료들과 호흡을 맞추며 열광적인 무대를 이끌어냈다.

박희성은 조장으로 한 1조는 백지영과 택연의 ‘내 귀에 캔디’를 공연곡으로 선택했다. 박상필 트레이너가 퀸으로 190cm가 넘는 유종현과 유동민이 여장을 하면서 장기자랑 이벤트를 마무리 했다.

심사위원단은 첫 무대를 장식한 2조와 잔잔한 감동을 안겨준 3조에게 공동 우승을 안겨줬다. /wool@kwangju.co.kr

한국카랜드 자동차용품 할인점

<http://www.hkcarland.com>

TEL. 062-521-2258 H.P. 010-9633-3535

한국카랜드가 하는일

- 루마썬팅, 3M코팅, 모비스썬팅
- 맥고이어스글랙, 코팅, 실내클리너, 하부언더코팅
- 만도네비게이션, 아이나비, 모비스네이게이션

- 카오디오,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DMB샤크인테나
- 자동차경비일체, 벳데리, 오일교환, 라이닝 기타
- 한국라이어, 금호타이어, 넥센타이어, 수입타이어

- 천연가죽시트, 인조가죽시트, 수입차 가죽시트제조
- 바닥방음, 천장방음, HID램프, LED램프
- 이자카 도난경보기, 후방감지센서

국내최대 500명매장

주차장 700명 주차걱정 끝



루마썬팅 | 3M썬팅 | 모비스썬팅

앞유리 썬팅을 하면 열차단·자외선 차단 끝

루마스타급
50% 특별할인 행사

- ▶ 전면 170,000원 → 85,000원
- ▶ 후. 측면 230,000원 → 145,000원
- 자동차 앞유리 썬팅
- 자외선 차단 (기미, 주근깨, 검버섯, 예방효과)
- 뜨거운 태양 (열차단)
- 뛰어난 시야확보 (안전성)

천연가죽시트



타이어 | 휠 | 경정비



한국, 금호, 넥센, 미쉐린, 수입

HANKOOK driving emotion

- 얼라이먼트 3~5만원 무상점검
- 평생 평크 무상점검
- 타이어암, 뒤 순환교체 평생 무료점검
- 브레이킹워셔액 무료증정

타이어 상담전화: 062-528-2258

광택 | 유리막코팅 | 맥과이어스 | 3M

Meguiar's since 1901

오리지널 맥과이어스 광택제 사용 “전국최저가”

- ▶ 소형 25만원 → 13만원
- ▶ RV 35만원 → 23만원
- ▶ 중형 30만원 → 18만원
- ▶ 수입차 40만원 → 28만원
- ▶ 대형 35만원 → 23만원